

지역 소식통

정읍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정읍시 장애인복지관(관장 남영희)은 지난 13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는 코로나19 후관 중인 장애인복지관 직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악한 환경의 집 인파를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주방의 식기와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묵은 때와 곰팡이를 제거하고, 소독까지 마치는 등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선물했다.

서비스를 지원받은 정 씨는 "덕분에 청결하고 쾌적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고생해주신 장애인복지관 직원분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장애인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토종벼 수확 행사

고창군 토종벼연구회와 고창지역 일반농가 50여곳이 참여한 토종벼 벼베기 행사가 14일 오전 고창군 무장면 들녘에서 열렸다.

앞서 '사람살려' 고창토종벼연구회 등이 주축이 돼 지난 6월 지역 토종농산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토종벼 모내기를 하고, 갈마와 태풍을 이겨내며 정성껏 키워냈다.

이날 연구회는 그간 수집해온 28종 토종벼 중 9종(붉은메, 흰메, 장가벼, 신대미, 노인도, 증복벼, 돼지찰, 녹토미, 자광도)을 손수 낫으로 수확했다.

이날 행사는 임원경제 사회적협동조합 변흥섭 부이사장이 토종벼 기원과 특성에 대해 교육하고, 토종벼 손 수확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토종벼 9개 품종 전시와 토종쌀신대미, 녹토미 등) 시식, 미꾸라지 통발체험, 홀대체험과 토종 모종을 분양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공공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정읍시, 문화예술시설·실외 체육시설 등...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시는 시설 상황과 방문자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단,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 중인 만큼, 모든 행사와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정읍시예술회관을 비롯해 연지아트홀과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 4곳의 문화예술시설을 개방한다. 이에 따라 1~2m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시설 입장과 관람, 이용이 가능하다. 시설이용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 대장 작성 등 개인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후 입장하게 된다. 정읍체육공원 인조 구장과 풋살장, 신대인 체육공원 축구장 등 공공 실외 체육시설과 내장산위터파크 음악분수도 함께 운영이 재개됐다. 이번 운영 재개 대상에서 제외된 실내 체육시설과 내장산위터파크 공연장은 정무원 양지마을 출입 통제 해제에 따라 추가 재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설 운영 재개로 인한 감염병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 방역 소독 등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점검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분들께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시신 덕분에 공공시설을 재개할 수 있었다"며 "꼼꼼한 소독 방역으로 문화·체육시설 및 관광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고창군, 올해 산물벼 3만8276톤 매입

유기상 군수 현장찾아 격려

고창군이 올해 산물벼(수확한 뒤 건조하지 않은 벼) 3만8276톤을 매입한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진기영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장, 백영종 흥덕농협장이 이날 오후 2020년 산물벼 수매 현장(고창통합흥덕RPC)을 찾아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산물벼는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써 지난 7월부터 11월 20일까지 고창통합RPC, 오성RPC, 한결RPC를 통해 매입된다.

고창군은 2020년 산물벼를 총 3만 8276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공공벼축미 수매 2,376톤, RPC 자체수매 3만 5,900톤이다. 공공벼축미 산물벼 매입 품종은 신동진, RPC 자체수매 품종은 신동진, 예찬, 동진찰 등이다. 공공벼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2020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환산해 결정된다. 농가가 수매한 직후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나머지 차액은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또 RPC별 자체수매 매입가격은 11월말 농협에서 결정 예정이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방역에 역점을

두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벼를 출하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에 따라 매입검사장 내 모든 인원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마을별 또는 농업인별 시차제 출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올해 저온피해, 집중호우,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유기상 군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산물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산물벼의 적기 출하로 고품질의 벼를 차질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에 귀어 한상연씨, 귀어귀촌인 경진대회 대상

부안군 진서면에 귀어난 한상연(40)씨가 2020년 우수 귀어귀촌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PPT)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한상연씨는 2차 발표평가에서 탁월한 실력으로 호평을 받

으면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상연씨는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던 중 여행 차 운데 이렇게 큰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후배 귀어귀촌인과 공유해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착을 했다. 한상연씨는 "먼저 저와 제 아내가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큰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후배 귀어귀촌인과 공유해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17개소 중 3개소(백산면 디온농장·미래축산, 줄포면 신성농장)를 직접 방문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가족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부안군 '깨끗한 축산농장' 현판 전달

농축산식품부, 관내 17곳 지정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17개소 중 3개소(백산면 디온농장·미래축산, 줄포면 신성농장)를 직접 방문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가족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올 상반기 부안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전북도 지정 84개소 대비 20% 수준으로 현재까지 부안에서는 총 44개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 군은 오는 2023년까지 총 80개소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안관리는 물론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가족방역 적정처리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

생이 적은 친환경 축사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다. 인증기간은 총 5년으로 이 기간 동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대상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한다. 군은 향후 가족분노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축산사업 추진에 있어 깨끗한 축산농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은 물론 악취저감을 통한 주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데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농기센터, 틈새 소득작목 '태추단감' 육성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틈새 소득작목으로 태추단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읍 지역에서 태추단감은 1997년 처음 재배되었으며, 2012년부터 13개 농가에서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40개 농가 30ha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가소득 틈새 작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태추단감연구회(회장 조기만)를 운영하고 있다. 태추단감은 평균 18브릭스의 높은 당도로 일명 '배단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아삭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수확기가 일반 단감보다 빠른 10월 상순~중순으로 추서에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추석 단감'이라고 불린다. 다른 과일과 비교해 월동한 맛을 지

랑하지만, 저장에 어려움이 수확하는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아쉬움이 있다. 태추단감은 겨울철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수분관리 등 재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 표피가 약하고 폭지 탈락과 윤문 증상으로 생산에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태추단감의 품질향상을 위해 예로 기술 해결과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기술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태추단감의 수형 안정화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500만원을 투입해 우산식 지주 지원사업과 규격별 선별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단풍과민대화를 개설했다. 품종 특성과 전정, 시비, 병해충 방제 기술 등 교육을 제공하면 농민인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